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339호 [부제 제 25848호] 주제 106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으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떨치자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 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자강도, 남포시, 라선시 군민련환대회 진행

조선로동당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걸음에 따라 단행된 새 형의 대북간판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오직 자기의 힘을 믿고 혁명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나가는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편승의 신심과 용기를 배여주고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강철의 담력을 빼앗고 불멸의 협신적인 명도로 해부역 강화의 강행군길을 억척 같이 헤치시며 사회주의강대국 건설의 한판대로를 환히 열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일사를 삼가 드리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자강도, 남포시, 라선시 군민련환대회가 3일과 4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주체조선의 역할 위임유 민망에 파시한 오늘의 민족사적 대승리를 고조시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애용 결사관련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의 레일을 앞당겨나갈 혁명적의지를 암고 모여온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군중들이 차분히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의 위대한 대승리를 암이오실 친체의 애국자 김정은동지 만세!』 등의 구호들이 모셔져 있었다.

또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파시한 대북간판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를 비롯한 구호들이 세워져 있었다.

지방당, 청원기관, 군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장에 참가하였다.

대회장은 애국주의 주제로 시작되었다.

자강도에서

자강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위원장 김제동 등지가 항복한데 이어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동지, 조선인민군 장병 김봉호동지, 도청년동맹위원회 1부서장 김정숙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새형의 대북간판도로

제 339호 [부제 제 25848호] 주제 106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대하여 강조하였다.
라선시에서
라선시 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부상명을 조선로동당 라선시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동지가 항복한데 이어 시당위원회 부위원장 정평호동지, 조선인민군 군관 려기영동지, 시청년동맹위원회 1부서장 김철룡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주제 106(2017)년 11월 29일은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을 회상의 경지에 올려세울 위대한 힘 이 탄생하고 미제의 핵공격과 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통쾌한 승전의 날로 조국청사에 안연히 아로새겨질것이라고 말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세상을 들었다는 확대사변들을 편이어 이룩 하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땅에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전무후무한 강국건설업적은 영원히 및남짓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최체의 천출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내 조국의 친란한 미래가 있다는데 억척번의 신념을 지니고 당의 위업을 충신히 다해 밟아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조직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개최한 용대한 목표를 앞당겨 절경 허기 위한 조직정지사업을 혁명적으로, 광범적으로 펼쳐나감으

로써 국방과 학부문 전투원들이 발휘한 투쟁기풍이 시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꽂쳐님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박수하였다.

그들은 철리마제 강원합기업소, 대인증기체련합기업소, 금성뜨락포르공장 등 시안의 공장, 기업소로 동계급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자강생대전군의 천원에서 승전포상을 높이 올리며 경제국건설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만악 미제와 그 주종세력들이 끌끌내 이 땅에 혁전령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가장 무자비하고 철철한 선제타격으로 철탁자들을 죄후밀망의 구렁텅이에 처박고아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백두의 청신한 공기로 마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떠나갈 맹창들로 억제적자리난 청년대군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흥격적인 대회에서 벼랑위에 놓인 경계를 넘기지 않고 대회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언제나 고도의 격동태세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망선을 설벽으로 지키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행복을 노리는 침략의 무뢰를 한눈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렸으로써 만민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시안의 전체 당원들과 군로자들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마다에 조아비고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일원의 혁명투사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이 발악적으로 나을수록 승리자의 배움은 더 강하고 기상은 더 높이 펼치며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중요질투장을 세워 비약과 혁신의 열풍을 세우게 일으켜

제3시험발사의 대성공소식은 지금 나라를 크나큰 환희와 적정으로 세차게 끌어안지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역사적인 『11월대사변』으로 미국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단적인 제재압박책동은 풍지박산나고 우리는 병진의 력을 보면서 자립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대한 바지를 가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후대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혀아픈 고생과 시련을 다시는 겪지 않고 영원히 사회주의만복을 누릴수 있게 된다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인민군장병들과 도안의 전체 인민들이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경애하는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빌찌산훈련원장을 세차게 일으키며 전단의 전투동원대세를 빛틈없이 갖추어 절전의 시각이 오면 원우의 아성을 단숨에 초토화해버리고야말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일상의 경사상세를 천명으로 예술화하여 일상화되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국방파학전사들의 경사상의 두정성진을 따라 배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전구들마다에서 세상을 둘러우는 영웅년신화들을 다발적으로 펼칠적으로 강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방파학부문 전투원들처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뜻깊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침해할수 없게 되었으며 실체적인 힘으로 나라의 주권과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담보해나기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구상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선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힘있게 벌리고 주요대상 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괄별해나가고자 한다.

연설자들은 온 행성을 미중유의 충격으로 뛰어든 민족사적대승리

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끌쳐 사회주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한 전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오늘의 거대한 사변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핵무력강화의 강행군길을 앞장에서 헤쳐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백적인 명도와 헌신의 뜻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국방파학전사들의 경사상의 두정성진을 따라 배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전구들마다에서 세상을 둘러우는 영웅년신화들을 다발적으로 펼칠적으로 강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시안의 전체 당원들과 군로자들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마다에 조아비고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일원의 혁명투사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이 발악적으로 나을수록 승리자의 배움은 더 강하고 기상은 더 높이 펼치며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중요질투장을 세워 비약과 혁신의 열풍을 세우게 일으켜

민족적대사변들로 충만된 올해를 빛나게 경축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철리마제 강원합기업소, 대인증기체련합기업소, 금성뜨락포르공장 등 시안의 공장, 기업소로 동계급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자강생대전군의 천원에서 승전포상을 높이 올리며 경제국건설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만악 미제와 그 주종세력들이 끌끌내 이 땅에 혁전령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가장 무자비하고 철철한 선제타격으로 철탁자들을 죄후밀망의 구렁텅이에 처박고아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백두의 청신한 공기로 마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떠나갈 맹창들로 억제적자리난 청년대군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흥격적인 대회에서 벼랑위에 놓인 경계를 넘기지 않고 대회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언제나 고도의 격동태세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망선을 설벽으로 지키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행복을 노리는 침략의 무뢰를 한눈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렸으로써 만민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군민련환대회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망선을 향해 힘차게 춤을 추며 우리에 대한 친애와 존경을 표명하는 행위는 우리에게는 철학적이며 문화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대회를 끝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할 때 대풍을 안아올수 있다

우리 식의 우랭이 유기농법 연구도입에 성공한 염주군 남암협동농장의 경험을 놓고

사회주의협동법에 황금법의 역사로 빛내여 위한 풍랑이 세자에게 라오르고 있는 속에 염주군 남암협동농장에서 우렁이유기농법연구도입에 성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및나에게 관철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전적의의를 가지는 율례에 우리 식의 우렁이유기농법을 전제로 한 풍랑을 끝까지 않고 확장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정보당 10t 이상의 논벼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한 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우렁이유기농법을 발달시키면 많은

불변의 신념은 성공의 결정적 담보

신념의 강자들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남암협동농장을 블리본 사람마다 찾고있는 심각한 표호이다.

6년전 어辱, 이 농장에서 사업 하제 편성령관리원장을 올해나마 포전물을 아보며 농장원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지역을 높이는 것이 글선부라는 것을 포착하였다. 땅은 속이지 못한다. 거름진 천이 부족한 학교로 보라일들이 보이는 거친 땅, 생육상태가 시원치 못한 땅과 토끼를…

황금법은 지역을 떠나서 바람수 없었다. 당시의 운명이 사기의 아래에서 놓여 있다는 자작을 이끼끼로 새길수록 염마인의 일터를 이겼다. 이날 농장에 내려왔던 군당책임일군은 끌어온 사회주의를 수호하자면 우렁이유기농법을 하루빨리 연구도입해야 한다, 비료와 동약재료나니라 전력, 석탄, 연유, 복약을 절약하고 철도의 부담을 멀미시도 더 많은 생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담보기 비로 여기에 있기에 본래는 우렁이유기농법을 연구원장하는 것은 기름진 땅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애국의 길이다. 그래서 나는 우렁이유기농법을 애국농법, 후대농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염주 땅의 농사 군이 어떤 죽으나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풍복령동농장을 찾으시고 주신 강령적 파업과 우렁이유기농법 연구도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과학이고 농사이며는 신념이 확고하여 꾸 성공할수 있습니다.』

관리위원장은 정신이 불거졌다.

주체 98(2009)년 7월 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풍복령동농장의 우렁이양식장을 험지지하길 당시 이 농장에서 일하였다. 그는 이날은 세자에게 풍복령동농장을 잘 알고 있었다. 틀어커놓은 우렁이유기농법을 때렸던 우렁이유기농법을 험지지하길 중요한 혁명임에도 차지기의 아래에서 지워져 있다니 자작으로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황금법이 가리킨 이 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신을 세웠다. 그는 려당위원회와 토의하고 우렁이유기농법연구도입에 서자기 능장에 전형단위가 될 대답한 목표를 내세웠다. 풍복령동농장에 어려지며 찾아가 경험을 때렸고 『우렁이박사』로 불리우는 친밀성종합대학 지질학부 실장 려의정박사는 기술강의를 열심히 담았다.

실험이 없으면 밖시군이 된다. 이것을 명심한 관리위원장은 우렁이유기농법에 대한 좋은 경험과 도서들이 있는 곳이라면 남먼저 달려가 실직서 배웠다.

신성이 생긴 그는 우렁이양식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한때 암암 양식공이 되고 관리공이 되어야 하면서 무진 애를 썼으나 우렁이유기농법은 적은 힘으로 지역재고와 논벼 수확하고 있는 천지이 솔었다. 농사경기는 예전에 직업성이 높은 농장원들을 우렁이판으로 선함으로 물리우며 끝까지 풀었다.

우렁이유기농법은 우렁이유기농법 연구도입으로 선함으로 물리우며 끝까지 풀었다.

『우렁이유기농법을 찾으셨습니다. 우렁이유기농법을 찾으셨습니다.』

우렁이유기농법을 찾으셨습니다.

우렁이유기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황해북도에서 성황을 이루며 련일 진행

당의 평도파라 사회주의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천만
군민에게 절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며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격동하는 시대의 춤결이 새롭게

황제 산에 춤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사리원에서 펼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매박치는 명성 높은 예술단체들의 공
연을 보기 위해 나라의 데 아금기지
인 황제성전 편성기념소를 비롯한 황
해북도 인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

전야들에서 모여온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로 공연장소는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남성독창과 남
성합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
로』, 경음악 『단송애』, 남성 3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
청의 도시 밤하늘에 뿐은 눈이 내리
네』, 가수 『보관듯이』 등의 다채로
운 종목들을 통하여 위대한 당을 따라
자기 위엄의 정당성을 굳게 밀고 힘차
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의
판단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
었다.

황북땅을 전개시키는 사회주의 전진
가는 성스러운 혁명의 넌데들에 우리
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발달은 전세대
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완성을 위한 두정
에서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 확대북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고 있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
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실과 박관에 넘쳐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
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낮 12시,

세계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대성

공포심을 제거하고
성명을 밟아안

은 일군들은
총분단 실성으로
걸쳤지 못하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께서는
제작조선의 무진막
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실과 박관에 넘쳐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
습니다.』

남포항만건설 사업소 지배인
리봉남동무도 『실험의 미국들
들에게는 조선의 드센 강타를
안겨주는게 제일 좋은 대답』

이라고 청을 놓구에 말하는 것
이었다.

행동으로 주는 대답!

강렬한 충격이 온몸을 훔쳤다.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괴』

를 끄러笤 없이 채웠 미치광이
트럼프들에게 조선은 걸고 빙마다
로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본토역을 타격대상
으로 정한 무기체계의 개발과
성공적시험발사였다.

그것도 보란듯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단행하
였으니 이 얼마나 강한임대
하고 편승의 실심에 넘친 대답

이다. 항일의 전구들과 조국해방
전쟁의 가볍지만 한 달에 유틸
총포들은 제국
주의 침략자들
에게 죽을
선고한 강자의
대답. 승리자
의 목소리가

며 울분을 토했어도 침략자들의
귀에는 악자의 공허한 헌식소
리, 신경쓸것없는 빙아리로
밖에 전달되지 않았다.

파란만장의 역사는 침과 폭제
를 취두르며 끊으려고 남기는
세력에게는 불피성으로 대답해
야 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울린 송소
리, 항일의 전구들과 조국해방

전쟁의 가볍지만 한 달에 유틸
총포들은 제국
주의 침략자들
에게 죽을
선고한 강자의
대답. 승리자
의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핵실험과 수소탄시험도, 런
이어 성공적으로 날아오른 주
제대들의 폭성도 태아난 정
의와 인류를 탈살하려는 전쟁
평생자에게 종족적 파멸을 안겨
주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
었다.

대답치고는 과연 래시에 전부
후후한 통쾌한 대답이다.

국력이 약할 때에는 대답이
좁다 하게 웃진 것만 해대며
돌아치면 미국놈들이 바로
제 나라의 하늘에 훔쳐나가는
꼴로나를 피 할수 없게 꾀
있고 제땅에서 활성화의 평
화를 두드려 얼변을
토해놓는 사람도 있고 주택을 혼
물며 미국놈들의 눈앞에 위험할
거라고 기쁨에 넘쳐있는 일군도
있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께서는 대답이
제작조선의 미국들
들에게는 조선의 드센 강타를
안겨주는게 제일 좋은 대답

이라고 청을 놓구에 말하는 것
이었다.

행동으로 주는 대답!

강렬한 충격이 온몸을 훔쳤다.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괴』

를 끄러笤 없이 채웠 미치광이
트럼프들에게 조선은 걸고 빙마다
로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본토역을 타격대상
으로 정한 무기체계의 개발과
성공적시험발사였다.

그것도 보란듯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단행하
였으니 이 얼마나 강한임대
하고 편승의 실심에 넘친 대답

이다. 항일의 전구들과 조국해방
전쟁의 가볍지만 한 달에 유틸
총포들은 제국
주의 침략자들
에게 죽을
선고한 강자의
대답. 승리자
의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핵실험과 수소탄시험도, 런
이어 성공적으로 날아오른 주
제대들의 폭성도 태아난 정
의와 인류를 탈살하려는 전쟁
평생자에게 종족적 파멸을 안겨
주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
었다.

대답치고는 과연 래시에 전부
후후한 통쾌한 대답이다.

국력이 약할 때에는 대답이
좁다 하게 웃진 것만 해대며
돌아치면 미국놈들이 바로
제 나라의 하늘에 훔쳐나가는
꼴로나를 피 할수 없게 꾀
있고 제땅에서 활성화의 평
화를 두드려 얼변을
토해놓는 사람도 있고 주택을 혼
물며 미국놈들의 눈앞에 위험할
거라고 기쁨에 넘쳐있는 일군도
있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께서는 대답이
제작조선의 미국들
들에게는 조선의 드센 강타를
안겨주는게 제일 좋은 대답

이라고 청을 놓구에 말하는 것
이었다.

행동으로 주는 대답!

강렬한 충격이 온몸을 훔쳤다.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괴』

를 끄러笤 없이 채웠 미치광이
트럼프들에게 조선은 걸고 빙마다
로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본토역을 타격대상
으로 정한 무기체계의 개발과
성공적시험발사였다.

그것도 보란듯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단행하
였으니 이 얼마나 강한임대
하고 편승의 실심에 넘친 대답

이다. 항일의 전구들과 조국해방
전쟁의 가볍지만 한 달에 유틸
총포들은 제국
주의 침략자들
에게 죽을
선고한 강자의
대답. 승리자
의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핵실험과 수소탄시험도, 런
이어 성공적으로 날아오른 주
제대들의 폭성도 태아난 정
의와 인류를 탈살하려는 전쟁
평생자에게 종족적 파멸을 안겨
주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
었다.

대답치고는 과연 래시에 전부
후후한 통쾌한 대답이다.

국력이 약할 때에는 대답이
좁다 하게 웃진 것만 해대며
돌아치면 미국놈들이 바로
제 나라의 하늘에 훔쳐나가는
꼴로나를 피 할수 없게 꾀
있고 제땅에서 활성화의 평
화를 두드려 얼변을
토해놓는 사람도 있고 주택을 혼
물며 미국놈들의 눈앞에 위험할
거라고 기쁨에 넘쳐있는 일군도
있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께서는 대답이
제작조선의 미국들
들에게는 조선의 드센 강타를
안겨주는게 제일 좋은 대답

이라고 청을 놓구에 말하는 것
이었다.

행동으로 주는 대답!

강렬한 충격이 온몸을 훔쳤다.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괴』

를 끄러笤 없이 채웠 미치광이
트럼프들에게 조선은 걸고 빙마다
로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본토역을 타격대상
으로 정한 무기체계의 개발과
성공적시험발사였다.

그것도 보란듯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단행하
였으니 이 얼마나 강한임대
하고 편승의 실심에 넘친 대답

이다. 항일의 전구들과 조국해방
전쟁의 가볍지만 한 달에 유틸
총포들은 제국
주의 침략자들
에게 죽을
선고한 강자의
대답. 승리자
의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핵실험과 수소탄시험도, 런
이어 성공적으로 날아오른 주
제대들의 폭성도 태아난 정
의와 인류를 탈살하려는 전쟁
평생자에게 종족적 파멸을 안겨
주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
었다.

대답치고는 과연 래시에 전부
후후한 통쾌한 대답이다.

국력이 약할 때에는 대답이
좁다 하게 웃진 것만 해대며
돌아치면 미국놈들이 바로
제 나라의 하늘에 훔쳐나가는
꼴로나를 피 할수 없게 꾀
있고 제땅에서 활성화의 평
화를 두드려 얼변을
토해놓는 사람도 있고 주택을 혼
물며 미국놈들의 눈앞에 위험할
거라고 기쁨에 넘쳐있는 일군도
있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께서는 대답이
제작조선의 미국들
들에게는 조선의 드센 강타를
안겨주는게 제일 좋은 대답

이라고 청을 놓구에 말하는 것
이었다.

행동으로 주는 대답!

강렬한 충격이 온몸을 훔쳤다.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괴』

를 끄러笤 없이 채웠 미치광이
트럼프들에게 조선은 걸고 빙마다
로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본토역을 타격대상
으로 정한 무기체계의 개발과
성공적시험발사였다.

그것도 보란듯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단행하
였으니 이 얼마나 강한임대
하고 편승의 실심에 넘친 대답

이다. 항일의 전구들과 조국해방
전쟁의 가볍지만 한 달에 유틸
총포들은 제국
주의 침략자들
에게 죽을
선고한 강자의
대답. 승리자
의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핵실험과 수소탄시험도, 런
이어 성공적으로 날아오른 주
제대들의 폭성도 태아난 정
의와 인류를 탈살하려는 전쟁
평생자에게 종족적 파멸을 안겨
주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
였다.

대답치고는 과연 래시에 전부
후후한 통쾌한 대답이다.

국력이 약할 때에는 대답이
좁다 하게 웃진 것만 해대며
돌아치면 미국놈들이 바로
제 나라의 하늘에 훔쳐나가는
꼴로나를 피 할수 없게 꾀
있고 제땅에서 활성화의 평
화를 두드려 얼변을
토해놓는 사람도 있고 주택을 혼
물며 미국놈들의 눈앞에 위험할
거라고 기쁨에 넘쳐있는 일군도
있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께서는 대답이
제작조선의 미국들
들에게는 조선의 드센 강타를
안겨주는게 제일 좋은 대답

이라고 청을 놓구에 말하는 것
이었다.

행동으로 주는 대답!

강렬한 충격이 온몸을 훔쳤다.

우리 공화국의 『완전파괴』

를 끄러笤 없이 채웠 미치광이
트럼프들에게 조선은 걸고 빙마다
로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본토역을 타격대상
으로 정한 무기체계의 개발과
성공적시험발사였다.

그것도 보란듯이 혁명의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단행하
였으니 이 얼마나 강한임대
하고 편승의 실심에 넘친 대답

이다. 항일의 전구들과 조국해방
전쟁의 가볍지만 한 달에 유틸
총포들은 제국
주의 침략자들
에게 죽을
선고한 강자의
대답. 승리자
의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핵실험과 수소탄시험도, 런
이어 성공적으로 날아오른 주
제대들의 폭성도 태아난 정
의와 인류를 탈살하려는 전쟁
평생자에게 종족적 파멸을 안겨
주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알리는 장엄한 선

통일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절세의 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불러오는 12월과 더불어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민족의 속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드립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쓸수 있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자제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어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더 빛이 어여나야 한다.”

만년을 풀물쓰고 민족분별의 비극의 역사, 치욕의 역사와 광장으로써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는 것은 우리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는 조국통일운동의 발전을 할것에 충분하였다.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고고와 심혈을 그 무슨 말로 더 표현할 수 있으랴.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얹은 가도 아풀수 없는 슬픔의 상처를 담금 주제 83(1994년) 원래 이례의 8. 15를 계기로 제5차 민족대회가 개최되며 되었고, 그러나 너무도 뜻밖에 민족과 대국상을 당하다보니 누구도 거기에 생각을 들리지 못하고자 했던 대회를 그 만두는 것이 많아졌다며 여기고 있었다.

바로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아픔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즐기자제 이끌어오신 민족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을 먼저 생각하시었다.

한 일군은 몸가까이 부르시며 민족대

회를 예정대로 진행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서는 이번 범민족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새롭게 진행하는 대회인 것만큼 수령님의 생활의 끊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사상을 만들어 통일운동을 할것에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하고 크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분으로 온 겨레가 눈물 속에 몸부림치고 있던 시기 에 제5차 범민족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것이니라 특색 있고 크게 조직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아 악운은 일군은 크나큰 충동과 걱정을 금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뜻이고 남원이었던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원수화시켜야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의미의 세계, 철학 같은 신념과 의지는 해내의 우리 겨레가 수령님의 조국통일 운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어떻게 두방해야 하는가를 특별히 일깨워 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조국통일민족대회를 박축본부에서는 제5차 범민족대회를 개최되도록 전진한다는 것을 선로하였으며 그에 따라 북과 남, 해외에서는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방해

와 협동을 물리치며 민족대회가 성립되도록 노력하였다. 그에 따라 북과 남, 해외에서는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방해

와 협동을 물리치며 민족대회가 성립되도록 노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남원하면서 조국통일의 전환

세력의 도전이 악랄해질수록 민족대단결대방침을 비롯하여 통일에 국운에서 서 틀어놓고나가야 할 사상의 저지침

을 통하여 밝혀주시면서 조국통일의 전환

국면을 안아오기 위해 불변불후의

로고를 기울이었다. 그탁월한 평도의

기운과 함께 1990년대 후반기에는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에 국운은 전

민족적범위에로 확대발전하였으며 조국

통일의 핵심직무는 세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9(2000년) 6월 15일 조국통일사업을 더욱 확장화

하는 역사적기회로 되었다. 대체로 대국상에

생각을 들리지 못하고자 했던 대회를 그

만두는 것이 많아졌다며 여기고 있었다.

바로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아픔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즐기자제 이끌어오신 민족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을 먼저 생각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조국해방

단합과 통일에 대한 겨레의 저항과 의지

는 더욱 고조되었다.

6. 15 통일시대와 더불어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의 물 세 아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양강으로 이끌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제 94(2005년) 6월 광명에서 진행되는 6. 15 광동선언발표 5돐 기념행사는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행사로, 자주통일위업의 도약대를 마련하는 중요개혁으로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이로 하여 6. 15 광동선언발표 5돐 기념행사는 사상과 전진, 소속과 지역, 당과 민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에 국위임에 마음과 뜻을 합치는 민족운동의 행사로, 조국통일운동에서 현대화협과 공동행동을 적극화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기이며 이북을 위한 겨레의 의지를 더욱 굳애준 의 있는 통일대축전으로 될수 있었다.

정명 외세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만행 등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있을 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 확실한 평도의 행보이며 위인직종포를 기울이시고 북과 남, 해외의

은 계획을 민족단합과 통일의 힘으로 정역적으로 이끌어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비범한 평도를 떠나서 걸고 생각할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의 강장발전에서 벗어나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힘으로 대안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외세의존에 환장한 반역무리의 추락

남조선피의들이 『핵, 미싸일위험』에 대해 피벌이면서 미국과의 항모결탁강회에 미군이 되어 돌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항모결탁강회에서는 조국통일운동을 더운 양강으로 이끌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제 94(2005년) 6월 광명에서 진행되는 6. 15 광동선언발표 5돐 기념행사는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행사로, 자주통일위업의 도약대를 마련하는 중요개혁으로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이로 하여 6. 15 광동선언발표 5돐 기념행사는 사상과 전진, 소속과 지역, 당과 민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에 국위임에 마음과 뜻을 합치는 민족운동의 행사로, 조국통일운동에서 현대화협과 공동행동을 적극화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기이며 이북을 더욱 굳애준 의 있는 통일대축전으로 될수 있었다.

정명 외세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만행 등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있을 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 확실한 평도의 행보이며 위인직종포를 기울이시고 북과 남, 해외의

은 계획을 민족단합과 통일의 힘으로 정역적으로 이끌어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비범한 평도를 떠나서 걸고 생각할수 있다.

미국과의 군사적 풍물결탁과 『동맹 강회』를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듯이 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적이다.

미국과 약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미미래당의 범악수 없는 흉심이다. 지금 이 시각에 남조선에서는 미제 침략군과 피의공군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속임, 탄성』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헌함공중

훈련을 미친듯이 끌고고 있다.

미국과 약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미미래당의 범악수 없는 흉심이다. 지금 이 시각에 남조선에서는 미제 침략군과 피의공군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속임, 탄성』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헌함공중

훈련을 미친듯이 끌고고 있다.

미국과 약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미미래당의 범악수 없는 흉심이다. 지금 이 시각에 남조선에서는 미제 침략군과 피의공군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속임, 탄성』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헌함공중

훈련을 미친듯이 끌고고 있다.

미국과 약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미미래당의 범악수 없는 흉심이다. 지금 이 시각에 남조선에서는 미제 침략군과 피의공군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속임, 탄성』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헌함공중

훈련을 미친듯이 끌고고 있다.

미국과 약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미미래당의 범악수 없는 흉심이다. 지금 이 시각에 남조선에서는 미제 침략군과 피의공군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속임, 탄성』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헌함공중

훈련을 미친듯이 끌고고 있다.

미국과 약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미미래당의 범악수 없는 흉심이다. 지금 이 시각에 남조선에서는 미제 침략군과 피의공군의

방대한 무력이 우리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속임, 탄성』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헌함공중

훈련을 미친듯이 끌고고 있다.

미국과 약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것은 미미래당의 범악수 없는 흉심이다. 지금 이 시각에 남조선에서는 미제 침략군과 피의공군의</p

